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운 믿음의 사람들

-복음으로 여는 룯기-

룯기 1:15-17, 마가복음 10:45

정운돈 목사님

* **룯기:15-17**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 **막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 정, 의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까지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을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혹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기도제목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강단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받으려고만 하면 불행해진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베풀고 주신다.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불행해진다. 베풀고 주고 용서할 때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온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도전해야 한다.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쉬워진다. 노력하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다시 안 된다. 지치게 된다.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까지 완전히 거둬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한다. 그 말씀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교만과 무능과 어리석음으로 역사한다.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듣다보면 어느 날 깨달아진다. 영적인 것도 점점 발전한다. 수없이 들으면 어느 날 새 것으로 거듭난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란다.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언약이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행복이다. 조건이 없다.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면 그건 아직 서론이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의 불행한 것과 문제 있는 것들은 '절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가 문제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인생

을 살아가면서 모든 게 완벽하고 잘될 수는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실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이다. 이번엔 핵심 행사하면서 갑자기 돈도 많이 들고 전교인이 봉사도 많이 하셨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아무도 NO를 안 하신다. '장로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와 교단과 복음을 사랑하시는구나'하고 느꼈다.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이 이런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번엔 성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도 힘든 미션이지만 그게 우리가 사는 미션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넘어지지 말고 다스려야겠다. 룯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룯과 보아스는 자신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린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 사람들을 닮기 바란다. 성경은 항상 절대목표를 말한다. 요셉처럼 팔려가서도 생명을 살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을 믿으면서 미움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오늘은 룯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룯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룯기서는 어려움에 빠진 한 가정과 이를 도와준 보아스의 이야기 같지만, 그 내면에 숨겨진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다. 룯기서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구원과 생명'이다. 보아스가 룯을 도와주지 않았으면 룯은 굶어죽는다. 룯이 나오미를 버리고 가면 나오미는 죽는다. 희생은 구원을 상징한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파수망대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망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파수망대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또한 룯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도 룯기서가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룯기서를 통하여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삶과 구원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룯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룯기서를 마치고 있다. 룯기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겠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벧을 낳았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벧이고, 그 다음 보아스다. '오벧'의 뜻이 '나오미의 아들'이다.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때문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겨우 먹고 살다가 죽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계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릇을 넓히시기 바란다.

1. 먼저 룯기서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룯기서의 내용은 이야기다. 쪽 읽지만 해도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룯기 1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의 배경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맏손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년쯤에 맏손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 엘리멜렉이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빚을 지고 망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을 잃은 세 과부만 남게 되었다. 지금 시대와 다르다. 당시 여자들만 있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젊은 두 며느리를 불러 그들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가정은 극구 거절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룯과 늙은 여인 나오미만 남게 되었다. 나오미는 룯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룯과 나오미는 추수

하다가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살아가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땅 주인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곳을 잘 도와주도록 일꾼들에게 지시하였다. 보아스는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온 과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 도와주라고 한다. 보아스는 관심을 안 가지고 안 도와줘도 된다. 자기만 생각해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어제 핵심하는데 본부팀이 하루 전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와서 교회 바다에서 잤다. 우리 교회는 본부팀에게 잠잘 곳과 사우나를 제공했다.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일을 배려해주면 꽃을 핀다. 이기적일 때 불행한 사람이 된다. 일을 할 때도 전체를 봐야지 자기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안 할까 피해 다니면 인간 이하다. 잠언 12장 1절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고 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진 여인은 가까운 친척들이 책임지는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보아스가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는 자신의 젊은 며느리와 보아스가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나오미의 복음적인 모습이다. 결국 보아스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희생을 감안하고 또 절차를 바르게 밟아서 꽃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보아스와 롯은 훗날 다윗 왕의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가까운 친척들은 롯이 빛이 많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값 주고 산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혈의 피로 값 주고 샀다. 우리도 이 사랑을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보이기 원한다.

2. 롯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복음적인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이들은 복음의 절대망대를 세운 복음의 사람들이었다.

(1) 첫 번째 인물은 시어머니 나오미이다. 나오미는 한 마디로 자신의 두 며느리를 자신의 친딸과 같이 생각하였다.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면 자신은 늙고 병 들어서 최악의 극한 삶을 살겠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미래보다는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와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복음의 절대망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복음으로 대하니 믿음이 전달된다. 나오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였고 불행과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많은 빚까지 쳐서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야 했던 신세였다. 그 후로 더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 그런데 나오미는 영적인 여유가 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유도 없고 미래를 걱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고 절대망대다. 이래야 사단을 이기고 현장과 직장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은 램뉘트 시절에 영적인 걸 잘 준비해야 한다.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인턴십들이 힘들지만, 나중에 현장에 가면 별로 현장이 힘들지 않다. 거기서 빛의 망대가 될 수 있다.

(2) 두 번째 인물은 롯이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친엄마와 같이 생각하였다. 자신의 편안함과 행복과 정욕보다는 희생과 사랑을 선택한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 롯이 손익을 계산하자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할 게 분명하다. 롯은 사실 새가족과 같은 사람임에도 복음을 깨달았다. 나오미가 네 신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롯은 돌아가지 않았다. 주님이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 원했다. 우리가 믿는 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실망과 불행 뿐이다. 사람들은 한 명의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인생성공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저도 친구 많았지만 지금은 이름도 생각 안 난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롯은 복음을 알려주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하고, 희생한다.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롯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다. 삶의 기준, 수준, 표준을 자신의 소견에 두지 않았다. 보아스 밀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다. 여러분의 윤리,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란다. 롯은 생명을 살리는데 기준을 두었다. 만약 자신이 나오미를 떠나면 나오미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 세 번째 인물은 보아스다. 보아스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보아스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보아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큰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지만 희생과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리하여 보아스 또한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었다.

오늘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 교단의 신학과 전도의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30년 동안 훈련받으니까 5가지, 10가지, 20가지, 62가지, 7.7.7까지 나왔다. 한 가지, 한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10가지 신앙발판을 알고 삶 속에서 실현한 인물들이 롯과 나오미와 보아스였다.

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자녀를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롯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나오미가 원망했으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할 때 보이는 것이고,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윤리, 도덕을 가지고 재고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도 받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온전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세상의 일이 쉽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어차피 이 세상은 선이 없다. 최선이 없으니까 차선을 선택한다. 사실 차선도 없다. 사람들은 차악을 선택한다. 악한 게 세상에 너무 많지만 뛰어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않으면 절대 그 응답을 성취할 수 없다.

②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 복음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을 구원하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모든 걸 열심히 하지만 전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③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1번에서 3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성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④ 하나님의 보증,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

⑤ 하나님의 성전, 신자의 가치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자신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다.

⑥ 하나님의 계획, 진정한 선교지다. 어디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다. 성도가 있는 그 현장이 진정한 선교지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 있는 전도의 현장이다.

⑦ 하나님의 통치, 생사회복의 주관자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결국 해피엔딩이다. 롯과 나오미도 해피엔딩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⑧ 하나님의 섭리, 시한부인생이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⑨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이다. 모든 인간은 최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⑩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이다. 전도자에게는 최고의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열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발판이고 절대 목표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복음과 믿음의 사람 롯과 나오미, 보아스처럼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축복을 누리려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롯기서를 통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롯기서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음과 믿음의 절대망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거듭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